

PART

02

민간의 자생적
창출을 지원하는
신직업

- 27 기업컨시어지 176 | 28 노년플래너 182
- 29 사이버평판관리자 188 | 30 가정에코컨설턴트 194
- 31 병원아동생활전문가 200 | 32 기업프로파일러 204
- 33 영유아안전장치설치원 210 | 34 매매주택연출가 216
- 35 이혼상담사 222 | 36 주변환경정리전문가 228
- 37 애완동물행동상담원 234
- 38 신사업아이디어컨설턴트 240
- 39 그린장례지도사 246 | 40 생활코치 250
- 41 정신대화사 256

마음을 다해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애완동물행동상담원

독신여성인 K 씨(41세)는 어느 날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생활은 눈이 예쁜 푸들 강아지가 중심이 되었다. 쇼핑을 해도 강아지 옷을 먼저 사고, 먹을 것을 만들어도 강아지 밥을 먼저 챙겼다. 맘만 먹으면 훌쩍 떠났던 여행도 한두 번 강아지를 애견호텔에 맡기고 떠나더니 그것도 뜬해졌다. 어린 자식을 챙기는 엄마처럼 혼자 있을 강아지를 생각하면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만혼, 독신가구 그리고 노인가구가 늘면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졌다.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도 반려동물로 바뀌어서 관련 시장은 2020년 6조원을 예상할 정도다. 애완동물이 미용실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일도 다반사고, 생후 3주에서 12주가 된 애견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애견 전용 스파, 애견행동클리닉도 생겨났다. 애견행동클리닉에서는 주로 애완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해 불안감을 극복하는 심리치료를 한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문제 해결 또한 사람과 똑같이 이해하려는 주인들이 늘어나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이란 직업이 생겨난 것이다.



> 직무 개요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은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다양한 문제행동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교정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훈련한다.

> 주요 직무

주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교정실 등 동물의 행동에 대해 애완동물 소유주와 상담한다.

개와 고양이의 과도한 짖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화장실 문제 등과 같은 문제적 행동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하고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수행직무 | 애완동물의 문제행동 교정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애완동물의 문제행동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한다.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주 대상이며 애완동물의 주인에게 애완동물을 케어하는 방법과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애완동물의 문제행동은 과도하게 짖거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화장실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애완동물행동상담원에게 행동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원들은 대체로 애완동물 주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교정실 등에서 동물의 이상행동을 상담한다.

- 》 먼저 주인과 대화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동물의 행동을 관찰한다.
- 》 그런 다음, 애완동물의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며 주인과 가족 등이 프로그램에 따라 애완동물의 문제행동을 잘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교정법을 알려준다.
- 》 행동교정 중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도 있어서 진전된 사항을 체크해가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도 한다.

| 해외현황 |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은 대부분 자영업자

애완동물행동상담원(Pet Behaviour Counsellor)은 영국직업정보시스템(National Career Service)에 수록되어 있는 750개 직업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동물행동과 관련된 학위를 받고 진출할 수 있다. 이때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다른 과학, 그리고 영어와 수학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 둘째, 동물을 돌보는 서비스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 》 마지막으로 관련기관 중 하나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애완동물행동상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CIDBT(Cambridge Institute of Dog Behaviour and Training), APBC(Association of pet Behaviour Counsellors)등이 있다.



어떤 경로를 택하건 개별적인 동물의 행동교정과 관련된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있는 전문가로부터 감독훈련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영국의 직업정보시스템(National Career Service)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일한다. 수입은 주로 건당 상담료이며, 상담료는 시간당 85~250파운드 정도이다. 종사자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애완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78,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 국내현황 | 애완동물 관련 산업과 함께 발전할 직업

애완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행동교정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애완동물 행동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민간단체(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 발급하는 애견훈련사 자격증이 있고 2012년까지 약 6천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2년에 생겨난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이 있다. 그 외에 동물 미용과 관련된 ‘트리머’나 ‘애견미용사’ 자격증 그리고 도그쇼를 위한 ‘핸들러’ 자격증이 있지만, 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애견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 이를 교정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훈련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의 동물관련학과의 경우, 트리머, 핸들러, 동물간호, 동물미용, 실험동물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정작 특정 동물의 행동심리 및 행동교정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판매점(펫숍)에서 동물을 구매하거나 진료 시 동물의 사육과 훈련에 대한 조언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전문성이 없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일부 동물 행동교정이나 상담 전문가의 경우, 동물조련이나 훈련을 담당하던 이의 개인적 경험과 노하우에 근거하며, 이마저도 그 수가 적은 편이다.

| 역량 및 교육 | 애완동물 주인을 움직이는 능력도 중요

애완동물행동상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다루는 기술과 경험,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동물행동 교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정을 시작하도록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 》 마음을 열고 동물을 친구로 대해야 하고, 동물의 심리를 읽고 파악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관련학과에서 트리머, 핸들러, 동물간호, 동물미용, 실험동물관리 등을 배울 수 있다.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신직업 특화 훈련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주)동물과사람에서 애완동물행동상담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015년). 이외에 다우사회교육원에는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

| 직업 전망 | 충분한 상담경험 있는 전문가 필요

전국에 반려견의 수는 500만 마리가 넘는다. 그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어 심리상담사를 찾는 것처럼 동물의 마음을 치유하는 애완동물행동상담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애견훈련소 등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낯선 환경에 애견을 맡기기 보다는 문제행동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내담자(주인)의 집으로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이 직접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동물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역시 동물병원이나 애견 숍, 애견 카페가 늘어나는 등 애완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직업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 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은 자영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문제행동 교정에 대한 실패가 원인이 되어 유기견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기본교육 과정을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충분한 상담경험을 하고 감독(Supervision)을 받은 후에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문가 양성이 가능할 때, 이 직업의 정착과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적합한 사람은?

동물을 친구로 대하고 동물의 마음을 파악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 필요한 자격은?

공식화된 자격증은 없지만, 민간자격증이 있다. 동물을 다루는 기술과 경험, 의사소통기술, 행동교정의 필요성을 동물 주인이 느끼도록 설득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 필요한 공부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동물 관련 학과에서 동물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 어디서 준비하지?

고용노동부의 신직업 특화 훈련과정 및 민간자격증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 진출하는 곳은?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에서 행동교정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전문센터를 창업할 수 있다.

> 참고사이트

다우사회교육원 www.dwse.or.kr

한국애견협회 <http://www.kkc.or.kr>

조이독 아카데미 www.joydoh.co.kr

(주)동물과사람 www.dong-sa.com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www.hrd.go.kr (※신직업 특화 훈련과정 참조)

다우사회교육원

이사

정호원

“반려동물
얼마나
이해 하세요?”



동물을 상담한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_____

반려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유기견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상 동물의 언어(행동)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막 키우기 시작한 개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무는 버릇이 있고, 문 뒤에는 주인의 상처를 훑아줍니다. 주인은 “개가 나를 물고 후회해서 나에게 사과하는구나, 앞으로는 물지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는 “나는 리더이고 너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제 너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싸우지 말고 나의 부하로서 사이 좋게 지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사람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애완동물과 사람이 행복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약 900여 명이 교육 과정을 마쳤고, 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_____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인과 그 가족이 함께 대상 동물의 의사표현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애완동물행동상담원으로서 애완(반려)동물의 행동습성과 의사표현방식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받고, 애완(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량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우사회교육원에서 반려동물관리사와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동물교감사 자격과정의 이론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물행동학, 행동 교정 및 사회화 훈련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이 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은가요? _____

현재 반려동물 행동학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국내에 몇 곳 되지 않고 학과의 연혁도 오래되지 않습니다. 수의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들은 비전공자로서 관련 단체들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동물행동교정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입니다. 이들은 반려견훈련소·반려견 카페 등에서 활동하며, 통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후 1~2년 정도의 현장 체험을 하면 기본적인 행동교정은 무난히 할 수 있는 준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합니다. 참고로,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이 되기 위한 필수과목으로는 「동물(개-고양이)행동학」, 「동물(개-고양이)사양학」, 「동물(개-고양이의 다양한 문제행동 유형 및 교정법」 등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분야가 아니어서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_____

행동교정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동물보다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실제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트러블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반려동물의 의사표현법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인데, 일부 주인들에게 그런 점을 이해

시키려 하면 정작 사람에게 요구되는 끈기나 인내심이 부족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경우는 대개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행동교정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일을 하며 경험한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_____

2013년 2회 민간자격 시험 때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교육을 받았던 두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안양 소재 반려동물 대형 복합매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50대 중반 주부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한분은 텔런트였는데, 아내와 함께 자격과정을 마친 후 텔런트 일을 그만두고, 살고 있던 지방 도시의 빌라 내부를 약간 인테리어 해서 소자본으로 펫시터(애견 위탁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신직업과 관련되어 다수의 매스컴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고 또 현재 사업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직업으로 전직하는 분들은 대부분 관련 전공이나 경력 등과 무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직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_____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행동 교정이나 상담 전문가는 동물을 대상으로 사람과 트러블 없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게 돕는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 또한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발전 속도와 범위가 넓고 개척되지 않은 잠재 직군도 많다보니,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경험이 없어도 전직 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양한 직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직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성공은 노력과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 동물의 주인을 이해시키는 기본적인 대화 능력이나 사업 능력은 이차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